

##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새생명 축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초청받아 하늘문교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전대식 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십니다. 본당 뒤편에 내년도 달력도 달려있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주 토요일(12/16) 오전 10시부터 하늘문교회 야외카페에서 아동부 주관으로 '케익 만들기' 행사가 있습니다.
4. 다음 주일낮예배 후에 연말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 주일 낮예배 기도담당은 권용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예배는 이영선 집사님입니다.
6. 교우소식 : 신경미 권사님 가정이 15일(금)에 호평동을 이사를 합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 담당 \ 날짜  | 12월 10일                   | 12월 17일          | 12월 24일                    | 12월 31일                    |
|----------|---------------------------|------------------|----------------------------|----------------------------|
| 예배기도(오전) | 김운식 집사                    | 권용기 집사           | 오진석 집사                     | 신동기 집사                     |
| 예배기도(오후) | 오효근 집사                    | 이영선 집사           | 성탄축하예배                     | 송구영신예배                     |
| 주일식사담당   | 김경미 집사<br>이승미 집사<br>박진 집사 | 황희용 권사<br>이영선 집사 | 김금옥 권사<br>박선경 집사<br>이정현 집사 | 유숙정 권사<br>최윤정 집사<br>신경미 권사 |
| 토요일청소    | 주사랑목장(12/9)               | 에덴목장(12/16)      | 갈렙목장(12/23)                | 둘로스목장(12/30)               |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12월 둘째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의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 HANEULMUN VISION MESS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         |                    |
|---------|--------------------|
| *예배로 부름 | 인도자                |
| *성서교독   | 교독문 117번(구주강림) 다같이 |
| *경배찬송   | 36장(통 36장) 다같이     |
| *참회기도   | 다같이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

찬양과 기도

|      |                |
|------|----------------|
| 찬송   | 91장(통 91장) 다같이 |
| 대표기도 | 김윤식 집사         |

봉헌과 말씀

|          |                |
|----------|----------------|
| 성경봉독     | 사 41-10 인도자    |
|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
| 봉헌기도     | 인도자            |
| 말씀선포     | ‘함께하시다’ 전태식 목사 |

친교와 축복

|      |          |
|------|----------|
| 교회소식 | 다같이      |
| *결단송 | 620장 다같이 |
| *축도  | 전태식 목사   |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        |               |        |
|--------|---------------|--------|
|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 오승현집사  | 다같이    |
| 묵상기도   | 은혜를 구하며       | 다같이    |
| 찬송     | 538장 (통 327장) | 다같이    |
| 기도     | 오효근 집사        |        |
| 특별찬양   | 누구든지          |        |
| 성경봉독   | 행 16:1-15     | 다같이    |
| 말씀선포   | ‘꿈,하나님이이끄십니다’ | 허영진 목사 |
| 기도     | 인도자           |        |
| 교회소식   | 인도자           |        |
| 찬송     | 432장(통 462장)  | 다같이    |
| 축도     | 허영진 목사        |        |

WEEKLY WORSHIP 주중예배

|                |  |        |
|----------------|--|--------|
| 수요예배           |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br>요 6:1-13 ‘그 후에 예수께서’(4)     | 허영진 목사 |
| 금요기도회          |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br>마 6:5-8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2)  | 허영진 목사 |
| 새벽기도회<br>(월~금) | 새벽 5:30 시편 묵상<br>시 59:1-17 ‘하나님은 나의 요새’(1)-(5) | 허영진 목사 |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추위로 인해 온 세상이 얼어붙었다. 이번 주에는 연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나름 겨울채비를 한다고 했지만, 돌봐야 할 것들이 많은 우리 교회로서는 이것저것 다시한 번 매만지게 된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하지 못하니 말이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연초에 가졌던 작심들이 얼마나 잘 지켜져 왔는지... 썩 그리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아프고 서글프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삭막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묻어나는 아스라한 그 무언가를 기대해 보지만 채울 길이 없다. 이 회색빛 도시의 어둠과 밝음의 양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짠하다.

우리 교회의 겨울 낮은 다른 그 어느 곳보다도 짧다. 오후 3시면 온기로 데워주었던 햇볕이 가뭇없이 스러지고 만다. 주변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짧게 비추고는 그렇게 어둠에 다음 자리를 내어 준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다. 반대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 또한 스러지게 마련이다. 허용하면 자신의 존재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네 삶은 언제나 어둠과 빛의 양면을 다 가지려고 한다. 이게 문제다. 이를 ‘거짓 안전’, 혹은 ‘위장된 평화’라 지칭할 것이다. 흔히 ‘양의 탈을 쓴 늑대’에 비유할 수도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를 ‘쓸데없는 오후라는 위장막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듯이 남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런 일도 시도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곧 선과 악을 동시에 소유하고 사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있는 이즈음,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으로 세상 소욕을 물리치고 진정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을 역지사립게라도 붙들어 보자. 그러면 우리의 빛된 삶으로 인해 어둠은 조금씩 물러날 것이 분명하다. 낮은 땅의 사람들은 힘에 겹더라도 빛이라는 밝음의 추진력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겨울바람이 매섭다. 그러면 옷깃을 끝추세우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Written by 허영진